



주요 소식

- 비상한 각오로 위기 총력 대응
- 가정(家庭)
- 온기 있는 공동체
- 행복도시, 치안 '튼튼', 방재 '안심'



가정(家庭)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8세기 영국의 문학가이자 홍콩 총독을 지낸 존 보링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에 실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구절도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家庭)’의 의미는 3대가 한집에 모여 살았던 전통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구성된 이른바 ‘핵가족’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무자녀 부부에 이어 1인 가구, 비혼족 등이 등장하면서 ‘일상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개념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든 개인의 자유지만,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4분기만은 0.65명으로 떨어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명 미만을 기록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약 3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대책이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합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아동수당만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을 갖게 해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4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 대계(大計)인 만큼 이에 맞춰 고용과 근로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시차출퇴근, 단축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력 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이 몰려 있는 행복도시 세종의 경우 출산율과 다자녀 비율이 줄곧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이를 실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도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의 표본으로 제시될 수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의 95%가 국공립이며, 지역공동체 자녀돌봄 품앗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다양한 놀이공간 및 가족 단위 행사 등 독박 육아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도 큼니다.

현대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며, 자식을 돌보는 기쁨은 가장 거룩한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같은 난제를 풀어 미혼 청춘과 신혼 부부들이 이러한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온기 있는 공동체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다.” 17세기 영국 성직자 겸 시인 존 던의 ‘명상록’에 실린 산문시의 한 구절입니다. 미국 극작가 토니 쿠슈너 또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무리 짓는 ‘공동체 생활’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어 초기에는 가족, 친족과 같은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차 가치관이나 문화, 규범 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곧 사상이 되었고, 이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또 발전해왔습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인(仁)’을 바탕으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각자가 신분질서 내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가(儒家), 구성원 간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랑, 즉 ‘겸애’를 부르짖었던 묵가(墨家), 엄정한 법치로써 ‘부국강병’을 추창한 법가(法家) 등의 제자백가는 모두 공동체와 관련된 담론이었습니다. 서구권 역시 국가는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신분과 종교에 기반한 공동체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이상적인 모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가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결속력은 느슨해졌을지언정 공동체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고,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개인의 고립과 소외가 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타인과의 공감 및 사회적 연대와 같은 가치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유기적인 존재로서 공공의 선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소통과 포용으로 연결되며,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사회 발전을 이끈다. 이른바 ‘따뜻한 사회’가 목표인 듯 싶습니다.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행복도시 세종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예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관,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된 이곳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하며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생 공간입니다.

미국 36대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 버드 존슨은 “개척지에서는 이웃이 너무 적어서 이웃정신이 중요했고, 지금은 이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인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태인 바, 부디 ‘온기 있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행복도시 열린공간, 균형과 조화의 '국가상징구역'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는 링컨기념관에서부터 의회의사당까지 직선으로 약 3km에 폭 약 500m로 이루어진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의 한가운데 워싱턴 기념탑이 있으며 이곳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의회의사당, 북쪽으로는 백악관이 도시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국민과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상화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셔널 몰이라 불리는 이 광장은 현재 워싱턴 D.C.의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앞마당'이란 애칭을 갖는 국가상징구역이 되었고, 한 해 2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도 각광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도시계획은 1791년 프랑스인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팡'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요청에 의해 그 밑그림을 그렸고, 이후 여러 세대에 걸친 보완 발전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행복도시는 워싱턴 D.C.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워싱턴 D.C.에 포토맥 강이 있다면 행복도시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 워싱턴 D.C. 시민이 타이들 베이스 호수에서 아름다운 일상을 즐긴다면 행복도시민은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세종호수공원을 찾습니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주도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라는 점도 비슷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2007년 착공하여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초기활력단계(1단계), 기업과 대학 등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자족적 성숙단계(2단계)를 거쳐 2021년부터 국토균형발전의 혁신거점으로서 도시를 완성하는 단계(3단계)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다가서며 중견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행복도시는 국정운영과 입법기능 도입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고 있는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상 도시건설 기본방향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행정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 기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달라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도시 중앙부의 이른바 '열린공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넛모양의 환상형 도시구조의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탁 트인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록관, 국립도서관, 예술의전당, 국립수목원 등 다양한 문화와 여가시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더해지면 입법과 행정,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며 도시기능과 시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린공간에 어떠한 국가적 가치를 담아내고, 또 주변과 얼마만큼 조화롭게 연계·발전해나가는지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청이 열린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이곳을 국가상징구역으로 정의하고 국가발전의 균형과 조화, 물리적 개방성과 민주적 시민참여 등 도시비전과 국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도시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 즉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그 공간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복청은 올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곧 모습을 선보일 열린공간이 물리적 공간의 개방성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공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청, 비상한 각오로 우기 총력 대응

- 김형렬 청장, 특별 추가 현장점검, 비상대응체계 및 요령 내재화 등 지시

행복청은 7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우기에 대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 여름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측에 따라 집중 호우에 대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과 비상근무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형렬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7월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근무 기강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행복청 소관 건설현장 25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현장점검 결과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 강화계획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한 특별 추가 현

장점검 실시, 전직원 및 현장 관계자의 안전대책 및 비상근무 요령 내재화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행복청은 앞으로 10월까지 우기 대책 기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태세를 강화하고, 현장 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과 공조하여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 및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 폭염



자연재난 폭염



행복청,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준비 본격 착수

|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과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

행복청은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착수보고회를 7월 19일(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와 국가상징구역(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약 210만㎡)의 도시설계에 대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착수한 것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착수보고회는 수요기관인 대통령실(총무비서관실)이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착수보고를 통해 관리용역 수행사로부터 공모 추진체계 마련,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공모 추진방안 마련 등 향후 과업 수행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 고 밝혔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정부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내 최초 디지털트윈 혁신서비스 도입

| 금년까지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및 3D 메타버스 구축 완료 |

행복청은 올해 12월까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전체에 '초실감형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현실 공간을 모델로 동일한 시설을 가상공간으로 구현)'을 도입하고 스마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혁신 실증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합니다. 올해 말까지 서비스가 도입될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월 5400명 이상의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6월 '디지털트윈 정부혁신서비스 공공시설분야 최초 실증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디지털트윈 서비스는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3D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 '에너지 및 시설 관리 시스템' 총 3단계로 구축됩니다.

1단계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은 공공스포츠 시설물 최초로 균중 밀집도와 소리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합니다. 2단계인 '3D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는 온라인 안전교육과 공연, 미술전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3단계 '에너지 및 시설관리 시스템'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결합하여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게 됩니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이번 디지털트윈 서비스 도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청사 입주공무원과 세종시민의 체육·문화 공간을 넘어 안전과 기술,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차별성 있는 공공시설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도시, 치안 '튼튼' 방재 '안심'... 안전모범도시 도약 위한 공공청사 건립 '순항'

- 경찰 및 소방 업무·훈련·교육 등 전용공간 조성 박차
- '실질적 행정수도' 걸맞은 안전역량 강화

행복도시 치안과 방재 등 안전을 책임질 공공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한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특공대가 설계 진행중이며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구 30만' 행복도시 치안 총괄하는 '세종경찰청' 독립청사 설계 중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는 행복도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17년 만인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맡고 있는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도시의 치안을 총괄하는 곳은 소담동에 위치한 '세종경찰청'으로, '19년 개청하여 민간 건물의 일부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예방과 같은 경찰청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 업무 까지 담당하고 있어 하루빨리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시설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경찰관 전용 훈련장이나 무기, 피복, 차량 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해 실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컸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행복청은 금년 중 세종경찰청 청사의 기본·실시설계와 설계 적정성 심의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강동 1만 8천㎡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등 위기대응 위한 전문 업무·훈련 공간 조성

세종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를 위한 전용건물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와 인명구조 등 업무와 특수훈련을 담당하는 세종경찰특공대는 2020년 11월 출범 이래 현재까지도 가람동 임시 건물을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2027년 고운동에 들어서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특수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시설입니다. 업무공간 외에도 다양한 대테러 훈련에 적합한 실내사격장, 건물종합훈련장, 탐지견 사육장 등 특수 훈련시설이 조성됩니다.

이 밖에도 행복도시 6개 생활권의 지구대에 이어 금년 3월 어진동에 7번째 청사지구대가 개청하면서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정부세종청사 인근과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청사지구대는 특히 24시간 교대 근무 하는 경찰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과 빠른 출동을 위한 동선계획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국가재난대응시설'로 안전역량 강화

한편,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공사 중인 다정동의 국가재난 대응시설은 대형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대규모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소방청은 실시간 현장 감시를 통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구조 및 현장통제를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습니다. 긴급 복구 및 응급의료, 자원 집결을 위한 훈련시설과 화재조사 분석실, 특수차량 관리공간 등 특화된 전문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상황 및 119 신고접수·출동·상황관제 등 모니터링, 화재·구조·구급분야별 현장대원 원격지원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 운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지금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라면서 "달라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과 방재시설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첨단과학·산업의 거점’ 실현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 향후 광역경제권 구축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함께 추진하는 ‘충청 특별지자체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의 주요한 목표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 형성에 있는 만큼, 분리된 경제단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복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국가주도로 건설 중인 신도시입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행복청은 전국을 2시간 내외 이동하고 광역생활권 내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충남·충북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망으로 행복도시와 충북 교통·물류의 요충지 연결

충북방향의 경우 그동안 교통 결절점 연결과 생활권 통합에 중점을 두고 ‘행복도시~오송역’, ‘행복도시~청주’, ‘오송~조치원’,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총 6개 노선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가 본격화된 2012년 7월 개통한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의 경우, KTX오송역부터 정부 세종청사까지 BRT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개발 초기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행복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석곡JC까지 이어지는 ‘행복도시~남청주IC’ 및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는 2016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사업 전·후 통행속도는 63.1km/h에서 76.8km/h로 높아지고 통행 시간은 12.6분에서 10.4분으로 단축되는 등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행복도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복도시~청주 간 교통량 처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국도36호선을 확장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와 ‘오송~청주 연결도로’가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개통되었습니다. 사업 전·후 통행속도는 43.9km/h에서 54.3km/h로 높아지고 통행 시간은 10.3분에서 8.3분으로 단축되는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통행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충북을 잇는 광역도로망은 개통 후 30년 간 약 1조 1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 도로관리자 등의 만족도가 84.3~89.1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통행 시간 단축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완성하여 광역경제권 미래 신산업 발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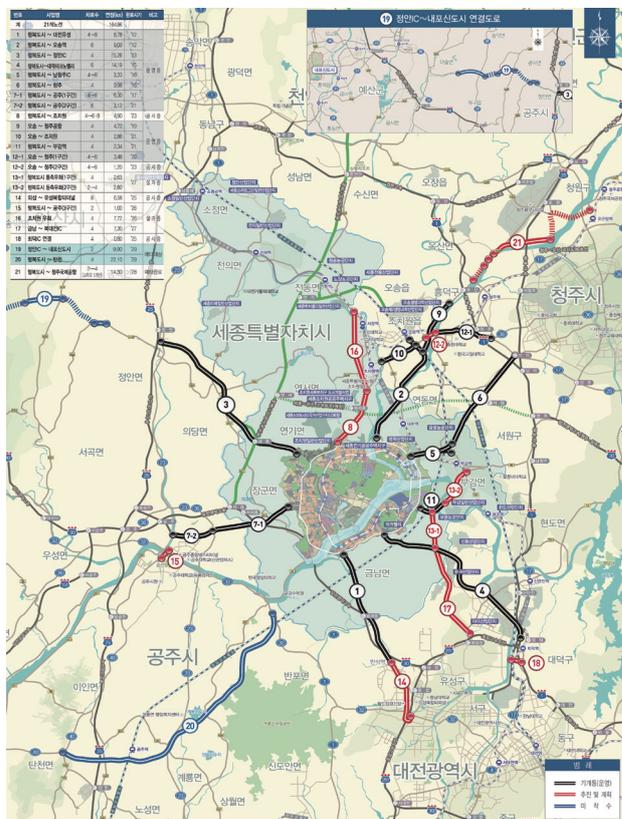
2020년 5월 오창테크노폴리스가 나노(Nano) 단위 세계의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고, 올해 5월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도시 건설 및 융합 캠퍼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 바이오밸리와 신 산업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융복합 항공산업 육성 등 현재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서 중부권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및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기존의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연장하는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노선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정시성을 높여 충청권의 항공교통 및 물류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특히 오송·오창 등 지역의 산업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청이 추진 중인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이 2030년까지 모두 개통되면, 충북의 오송 바이오밸리, 오창테크노폴리스와 세종의 스마트 국가산단, 테크밸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의 천안·아산 국가산단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첨단과학·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광역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충북방향 |

- ② 행복도시~오송역, ⑤ 행복도시~남청주, ⑥ 행복도시~청주, ⑨ 오송~청주공항, ⑩ 오송~조치원, ⑫ 오송~청주 ⇒ 6개 노선 개통
- ⑪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행여든 DAY 행복도시에서 즐기는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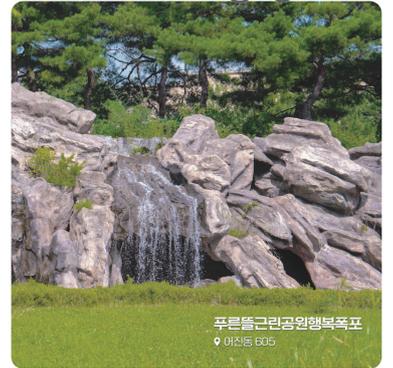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복놀이터 소개



1 푸른뜰근린공원 행복폭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5

첫번째는 푸른뜰근린공원의 행복폭포로 행복도시에서 만든 인공폭포입니다. 폭포 뒤쪽으로 인공 동굴까지 있어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폭포와 함께 시원함도 느끼고 산책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아침뜰근린공원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963

두번째는 한솔동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주변에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바닥분수와 함께 금호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분수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어른들은 금호정에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름을 즐겁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3 박연 문화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93

세번째는 박연 문화관으로 누구나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다양한 기획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1층에서는 세종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무형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이와 한글교시(7교시)



알쏭
달쏭

우리말
바르게 쓰기



사자성어 배워가기

수 적 천 석
(水) (滴) (穿) (石)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으로, 작은 노력(努力)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繼續)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 '왕배덕배'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이러니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 (O)
-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데로 행동하는 모양 (X)
- '돋우다'와 '돋구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시력이 떨어져 안경 도수를 돋궈야 한다. (O)
- 시력이 떨어져 안경 도수를 돋워야 한다. (X)

숙 제 코 너

알듯말듯 우리 숙담 알아보기

- ① 밤 잔 [?] [?]없고 날 샌 [?] [?]없다.
- ② [?] [?]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 6교시 숙제 코너 정답

- 1번 : 송사리
2번 : 조약돌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이곳은 시민들과 청사 공무원이 함께 누리는 복합체육문화공간으로 행복도시의 체육문화와 생활 스포츠의 거점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영, 풋살,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있고 자녀 동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가족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도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세 잎 클로버에서 모티브를 따와 형상화하여 아름다운 곡선과 독창적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초성인트

지 비 사 자 차 사 차 오 기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다 작성해서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